범어사, 세계 향한 국제템플스테이관 첫 삽

12월 20일,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 부지서

국제 명상 치유 도량 착공
사부대중 동참한 불사 개시
수행 교류 확장 비전 제시
올해 완공 위한 공사 돌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국제 사회의 수행과 명상 거점이 될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의 첫발을 뗐다.

범어사는 12월 20일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 예정 부지(부산 금정구 청룡동 479번지)에서 '범어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해 수좌 수불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부주지 대방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사중 소임자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재가 내빈과 범어사 신도단체 및 신도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착공의식 불공을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치사, 격려사, 축사, 시삽식, 사홍서원,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범어사 국제템플스테이관은 해마다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 명상, 수행, 교육, 교류를 아우르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국제템플스테이관은 외국인과 국내외 거주자 모두가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불교와 사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수행과 문화의 가치를 체득하고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건립 과정에 힘을 보탠 지자체와 관계 기관, 환경단체, 시공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좌 수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 명상의 날을 앞두고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이 이뤄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연을 만들어 온 범어사 사중의 노력이 오늘의 착공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기념사에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이 오랜 준비 끝에 내딛는 첫걸음"이라며 "전통을 지켜온 범어사가 변화하는 시대



범어사는 12월 20일 열린 '범어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식'에서 시삽으로 건립의 시작을 알렸다.

속에서 수행 도량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오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관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수행과 명상, 치유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오랜 시간 범어사 주변의 공간 확충과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았다"며 "이번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이 그간의 아쉬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승가와 재가 내빈이 함께하는 시삽을 통해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범어사는 국제템플스테이관 준공 이후 템플스테이를 수행과 치유, 문화 교류가 어우러진 글로벌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템플스테이관은 금정구 청룡동 479번지 일원 4필지에 건축면적 400.49㎡(121평), 연면적 646.51㎡(196평)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건립되며, 공사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종범 스님 "작은 티끌 하나도 비로자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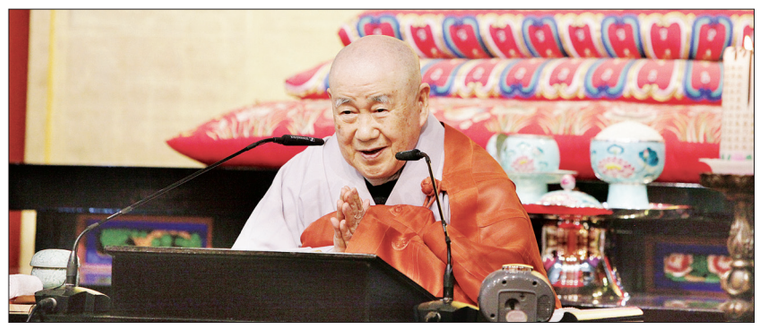
12월 20일, 통도사 설법전
화엄산림 입재법회 봉행해

"미진(微塵) 하나, 찰나(刹那) 하나까지도 여래의 지혜로 보면 모두 비로자나불의 공덕 세계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2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에 입재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매일 품차에 따라 〈화엄경〉을 강설하는 통도사의 대표 산림 법회로, 대중은 기간 중 원하는 날 동참해 경전의 흐름을 함께 체득할 수 있다. 이번 법회는 오는 1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화엄경〉 구성을 설명하며 "〈대방광불화엄경〉은 80권 39품으로, 보살이 입정하고 여래가 방광하는 구조 속에서 보살이 삼매에 들어 그 방광의 진실성을 깨달아 설하는 경전"이라고 말했다. 보살이 삼매에 드는 과정이 여덟 차례 있어 팔정(八定)이라 하고, 부처님이 방광하는 것은 열 차례로 십방광(十放光)이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대중이 이 화엄 법회에 동참해 화엄 예경을 올리는 것 자체가 곧 비로자나불의 화엄 세계를 장엄하는 일"이라며 "한 마음이 티끌로 향하면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중생이 되지만, 한 마음이 청정한 광명으로 돌아가면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된다"고 입재법문을 맺었다.

입재사에서 주지 현덕 스님은 "많은 대중이 마음을 모아 법문을 듣는 모습이 감동스럽다"며 "앞으로 더 추워지고 눈이 올 수도 있는 날씨 속에서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공동체 의식으로 무탈하게 법회가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가 12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에서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입재법문을 하고 있다.

'창립 12주년' 쿠무다, 자재병원서 자비 음악회

담요 100개 · 후원금 500만원도
"나눔 · 봉사로 기념식 대신해"

문화예술을 통한 전법 활동을 이어온 사단법인 쿠무다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의 곁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사진〉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12월 19일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마하보디센터 법당에서 '사단법인 쿠무다 12주년 및 명경문화재단 4주년 기념 자비와 나눔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쿠무다와 명경문화재단은 자재병원



에 담요 100개와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자비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 창립 12주년을 맞아 나눔과 봉사로 이곳을 찾게 됐다"며 "오늘의 음악과 작은 마음의 선물이 환우와 돌봄의 현장을 지키는 모든 분들께 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여원 '동지맞이 팥죽 나눔' 26년째 이어져

구포시장서 도시락 1500개 나눔

부산 진여원(원장 남순덕)이 동지를 맞아 26년째 이어온 팥죽 나눔으로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진여원은 12월 1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일대에서 팥죽 도시락과 과일을 나누며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무탈한 새해를 기원했다.〈사진〉

이날 준비된 팥죽 도시락은 1500개로, 구포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전달됐다. 진여원은 구포시장 나눔을 포함해 동짓날을 전후로 총 3000여 개의 팥죽을 지역



사회에 회향했다.

남순덕 원장은 "동지는 가장 긴 밤을 지나 다시 해가 길어지는 날로, 어둠을 걷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절기"라며 "팥죽 한 그릇에 액운을 막고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영산재, 공개시연으로 시민과 전통을 잇다

12월 18일, 부산 공간523홀서

부산 불교의 대표적 의식문화인 '부산영산재'가 시민과 직접 만나는 공개시연을 통해 그 전통과 의미를 알렸다.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회장 성림 스님)는 12월 18일 부산 사상구 공간523홀에서 부산영산재 공개시연 행사를 열고, 범패와 작법무, 의식 절차로 구성된 영산재의 흐름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사진〉 이번 행사는 부산영산재 의식집 발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부산시가 후원했다.

이날 시연은 도량 청정 의식부터 영산회



상 작법, 천도 발원 의식까지 장면별로 재구성됐다.

성림 스님은 "부산영산재는 부산 불교의 역사와 함께해 온 공동체 의식문화"라며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